KIA, 첫 원정 3연패

SSG 랜더스에 2-11
수비 실수에 병살타 연발
3경기 싹쓸이 패배

안방에서 3연승을 달렸던 '호랑이 군단'이 첫 원정길에서 졸전 끝에 3연패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2-11, 싹쓸이 3연패를 당했다.

주중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첫 스윕승을 완성했던 KIA는 주말 3연전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KIA는 양현종이 출격한 8일 단 2개의 안타를 만드는 데 그치면서 0-3 영봉패를 당했다.

9일 경기에서는 선발 싸움에서 완패했다. 팔꿈치 부상으로 빠진 션 놀린을 대신해 대체 선발로 나선 이민우가 4이닝 10피안타 5볼넷 1탈삼진 7실점으로 부진했다.

KIA 타자들은 KBO 복귀전에 나선 김광현에게 5회까지 발이 묶였다.

6회초 이우성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김광현의 퍼펙트를 깼다. 이어진 1사 1루에서 '슈퍼 루키' 김도영이 김광현을 상대로 21타석 만에 데뷔 안타를 만들면서 노히트 노런도 중단시켰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KIA는 이후 SSG의 불펜진을 공략해 5점을 만들었지만 경기는 5-9 패로 끝났다.

10일 경기에서는 올 시즌 KIA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비'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0-0으로 맞선 2회말

1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했던 선발 로니 윌리엄스가 0-0으로 맞선 2회말 선두타자 한유섬에게 우측 2루타를 맞았다.

로니가 최주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크론과의 승부에 나섰다. 공을 잡은 3루수 김도영의 악송구가 기록되면서 3루로 향했던 한유섬이 홈까지 들어왔다. 이어진 1사 2루에서 박성한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0-2가 됐다.

3회 실점에도 실책이 있었다.

2루수 김선빈이 선두타자 최지훈의 땅볼을 1루에 악송구하면서 무사 2루가 됐고, 최정의 좌전안타에 KIA의 실점이 올라갔다.

4회에는 유격수 박찬호가 실책쇼에 가세했다.

로니가 선두타자 박성한에게 우월 솔로포를 맞으면서 0-4, 이재원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김강민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던 박찬호가 공을 놓치면서 KIA의 3번째 실책이 기록됐다.

추신수의 몸에 맞는 볼까지 더해 1사 만루가 되자 KIA가 로니를 빼고 유승철로 마운드를 교체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유승철이 첫 타자 최지훈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운 뒤 최정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줬다. 이어 한유섬의 2루 땅볼 때 3루에 있던 김강민이 홈에 들어오면서 점수는 0-6이 됐다.

유승철은 최주환과의 승부에서는 우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을 맞으면서 점수는 0-9까지 벌어졌다.

KIA는 선두타자가 출루한 5·6회 연달아 병살타가 나오면서 2점을 더하는 데 그쳤다.

선두타자 김석환이 2루타로 나간 5회초 김도영도 2루수 포구 실책으로 출루에 성공했다. 김민식의 내야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KIA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박찬호의 병살타에 분위기가 식었다.

연속 볼넷으로 만든 6회초 무사 1·2루에서는 최형우의 타구가 투수 앞으로 향하면서 다시 병살타가 됐다. KIA는 황대인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탰지만 이후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시즌 첫 원정길에서 싹쓸이 3연패를 기록했다.

한편 공·수에서 KIA를 압도한 SSG는 개막 후 8연승 행진을 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옐로더비' 승자는 광주FC

전남드래곤즈에 1-0 승리
K리그2 1위 지켜

광주FC가 3년 만에 재개된 '옐로더비'에서 승자가 되면서 선두자리를 지켰다.

광주가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K리그2 2022 10라운드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연승에 성공했다. FA컵 포함 홈 6연승 기록도 만들었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FC안양을 2-0으로 제압한 부천FC를 1점 차로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날 경기는 3년 만에 K리그2 무대에서 펼쳐진 광주와 전남의 '옐로더비'로 눈길을 끌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9년 11월 3일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는 전남이 2-1 승리를 거뒀다. 이번에는 광주가 머리로 승리를 불렀다.

전반전은 '수문장 대결'로 전개됐다.

전반전 광주 골키퍼 김경민과 전남 골키퍼 김다솔의 선방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전반 9분 광주 엄지성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공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전반 17분 전남 한호강이 매서운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김경민이 호수비로 광주의 실점을 막았다.

엄지성이 전반 20분 다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골대를 맞았다. 3분 뒤에는 광주 안영규가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엄지성과 전남 최성진이 한 차례 슈팅을 주고받은 뒤 28분에는 전남 수문장 골키퍼 김다솔에게 시선이 쏠렸다. 김다솔은 엄지성의 슈팅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전반 37분 김경민이 최성진의 헤더를 막아냈고, 2분 뒤에는 김다솔이 두현석의 슈팅을 쳐내면서 두 수문장의 '기싸움'이 이어졌다.

전반 종료 직전 나온 광주 헤이스의 슈팅도 김다솔에게 막히면서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 됐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광주가 환호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으뜸이 왼발로 띄운 공을 허율이 머리로 터치해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안영규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노골이 됐다.

후반 29분 안영규가 노골의 아쉬움을 지우는 골을 장식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으뜸이 왼발로 공을 올렸고 문전에 있던 안영규가 헤더로 전남 골대를 갈랐다. 이번에는 문제 없는 확실한 골이었다.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 다시 한번 웃다가 울었다. 이번에도 이으뜸의 왼발이 시작점이었다. 이으뜸이 좌측에서 띄운 공을 김현훈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골대를 갈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득점 과정에서 김현훈의 핸드볼 파울이 나오면서 다시 노골이 선언됐다.

광주는 아쉬움 속에서 남은 추가시간을 잘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두고,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장수연, KLPGA 개막전 롯데 렌터카 오픈 우승

장수연(28)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시즌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7억원)에서 우승했다.

장수연은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37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한 장수연은 2위 이소미(23)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2016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장수연은 6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다.

개인 통산으로는 2017년 9월 메이저 대회인 KLPGA 챔피언십 이후 4년 7개월 만에 4승째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억2천600만원이다.

올해로 14회째인 이 대회에서 두 번 우승한 선수는 올해 장수연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영국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이 10일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1-2022 EPL 32라운드 원정 경기 후반 26분 팀의 4호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골·골·골… PL 득점왕 도전

애스턴 빌라와의 경기 해트트릭
토트넘 4-0 승리 이끌어
시즌 17호골 … 살라 3골차 추격

손흥민(30)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을 폭발, 토트넘의 리그 4연승과 4위 수성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1-2022 EPL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3분 선제 결승 골을 시작으로 3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4-0 완승에 앞장섰다.

후반 5분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추가 골 이후 손흥민은 후반 21분과 26분 연속 골을 보태 승리에 쐐기를 박으며 대승의 주역이 됐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15~17호 골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직전 2020-2021시즌 남긴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의 1골을 더하면 이번 시즌 공식전을 통틀어서는 18번째 골이다. 2020-2021시즌의 개인 최다 득점 기록과 4골 차다.

이 경기 전에도 EPL 득점 2위이긴 했으나 선두 무함마드 살라(리버풀·20골)와 6골 차였던 손흥민은 3골 차로 따라붙어 추격을 가시권에 뒀다.

지난달 21일 웨스트햄전(2골), 4일 뉴캐슬전(1골)에 이어 리그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 3경기에서만 6골을 넣는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손흥민은 2020년 9월 20일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시즌 2라운드(4골) 이후 EPL에서 개인 두 번째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토트넘 소속으로 공식전에선 2017년 3월 13일 밀월과의 2016-2017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3골)까지 포함해 세 번째 해트트릭이다.

손흥민은 앞서 독일에서 활약할 땐 레버쿠젠에서 뛰던 2013년 11월 함부르크와의 2013-2014시즌 분데스리가 12라운드, 2015년 2월 볼프스부르크와의 2014-2015시즌 21라운드에서 각각 3골로 해트트릭을 달성한 바 있다.

손흥민은 이날 3골 중 후반 21분 골은 '환상의 콤비' 해리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으며 넣어 EPL 역대 최다 합작 골 기록을 40골로 늘리기도 했다.

토트넘은 리그 4연승을 이어가며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승점 57) 수성에 성공했다.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아스널이 승점 54, 토트넘과 같은 경기 수를 소화한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점 51로 뒤를 잇고 있다.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포문을 열었다.

페널티 아크에서 케인이 때린 오른발 슛이 상대 선수를 맞고 굴절돼 흐르자 페널티 지역 안에서 지체 없이 왼발로 때린 공이 골대를 스치고 안에 들어갔다.

후반 21분 후방에서 길게 날아온 공을 하프라인 부근에서 케인이 또 한 번 머리로 연결했고, 수비 뒷공간을 노려 중원에서부터 쇄도한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슛을 꽂았다.

손흥민은 이날 3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뽐냈다. 토트넘 팀 전체 유효 슈팅은 5개였다.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이번 시즌 11번째 '매치 오브 더 킹'에 뽑히는 기쁨도 맛봤다. /연합뉴스

선수와 팬의 만남 '광주AI페퍼스 팬 페스트'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 선수단과 팬들이 만났다. 〈사진〉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AI페퍼스 팬 페스트'는 선수단과 팬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의미있는 첫 시즌을 마친 AI페퍼스 선수단과 팬들이 직접만나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겼다. 선수들은 숨겨진 끼를 발산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팬들도 다양한 이벤트에 직접 참여해 선수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시즌 히스토리 영상 시청과 가수 김범수와 라포엠의 축하공연, AI 페퍼스 치어리더 공연, AI 페퍼스 뮤직비디오 상영, 선수단 소개 등으로 꾸며졌으며 창단 첫 FA영입선수인 이고은도 팬들 앞에 모습을 보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